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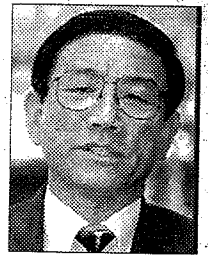
9일 세계평화교육자협회 시상식

국제교육자상·평화상 등 수상

UN의 NGO소속인 세계평화국제교육자협회는 지난 9일 올해 세계평화국제교육자상 수상자로 선정된 태권도인 제임스 오(사진·왼쪽)씨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제임스 오씨는 라크라센타에서 화랑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자였던 미국인 로버트 엘브씨가 암에 걸린 상황에서 태권도를 통한 오씨와 사제지간의 끈끈한 정이 미 전국에 소개되면서 이같은 상을 수상하게 됐다.

교육자협회는 또 미국제대학의 최순일 학장(사진·오른쪽)과 CBS방송사 사장 등에 올해 평화상을 수여했으며 각주에서 3명씩 선 발하는 무도대사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박



광철·양승렬·이영근씨 등 태권도인을 임명하기도 했다.

무도대사는 30년 이상의 무도경력을 갖추고 무도를 통한 화합과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협회측이 선정하고 있다.

네바다주에서는 박인권씨가, 뉴저지주에서는 박창근씨가 각각 무도대사에 선임됐다.

특수장애인 교육비 지원 촉구

어바인 교육구 교육위원인 최석호씨는 지난 7~10일 워싱턴 DC를 방문, 부시행정부 교육 관계자들과 연방 상·하의원들을 대상으로 특수장애인 교육비 연방정부 부담분 40% 이행을 촉구하는 로비를 벌였다.

최씨는 "1977년에 제정된 특수장애인 교육법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장애인 교육비의 40%를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15%선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만난 관료 및 의원들이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일제징용케이스 담당변호사 사무실 이전

일제징용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신혜원 변호사가 최근 에쿼티를 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새 주소는 3435 Wilshire Blvd., Suite 2731이며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은 (213)385-3773이다.



한인 정치의식 학술세미나

